

 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2021. 8. 6.(금) 10:30	배포일시	2021. 8. 6.(금) 10:00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지출혁신과장 권재관 (044-215-7900)	담당자	김민형 사무관 kminh@korea.kr
	기획재정부 교육예산과장 권중각 (044-215-7250)		김형은 사무관 wshot32@korea.kr

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, 충북대학교 방문, 「고등교육 분야 예산협의회」 개최

-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월 6일(금) 충북대학교를 방문하여 고등교육 분야 예산협의회를 개최하였음

< 고등교육 분야 예산협의회 개요 >

- 일시·장소: '21.8.6.(금) 10:00~11:30, 충북대학교
- 참석: (기획재정부) 제2차관, 재정혁신국장, 교육예산과장, 지출혁신과장 (교육부) 고등교육정책실장, 대학재정장학과장 (관계기관)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, 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,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장,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(전문가 등) 한요셉 KDI 박사, 이규진 ㈜심텍 상무이사, 배준태 J2K 바이오연구소장

- 이번 예산협의회는 열 번째 분야별 예산협의회*로서, 고등교육 분야 주무부처·대학교육 협의회·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그동안의 투자성과, 내년도 예산투자방향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음

* 국방(6.29), 일자리·고용(7.1), 사회복지(7.6), 문화예술(7.8), 농림·해양·산림(7.12), R&D·혁신산업(7.26), 환경·에너지(7.27), 소상공인·중소기업(7.27), SOC(7.29) 기 실시

- 안차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고등교육투자는 ①대학혁신 유도를 목표로 재정지원프로그램 개편, ②지역인재 육성·순환을 위한 지방거점대학 육성, ③고등교육기회의 형평 강화, ④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었고, 분야별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평가

- ① (대학지원프로그램 혁신) ①다기화된 재정지원프로그램¹⁾을 「대학혁신지원사업」으로 일원화²⁾하고, 지원규모 확대, ②두뇌한국 21(BK+) 4단계 사업('20~) 개시와 함께 지원 대상·단가 인상³⁾

1) ACE(자율역량), CK(특성화), PRIME(산업연계), CORE(인문), WE-UP(여성공학)

2) ('18) 4,468(5개 사업의 합계) → ('19) 5,688 → ('21) 6,591억원

3) (지원대상) 17→19천명 (단가) 신진연구인력 250→300만원/월

- 2단계 산·학·연 협력사업(LINC⁺, '17~'21)을 통해 투자 규모 대폭 확대¹⁾ 및 대학의 친산업적 체질개선 유도²⁾

1) (1단계) 87개교, 1.1조원 → (2단계) 149개교, 1.8조원

2)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수 : ('17) 624 → ('20) 1,077개

- ② (지방거점대학 육성) 지역인재양성 - 취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①국립대학 육성사업 획기적 증액* ②지자체·기업·대학간 파트너십 인재양성 프로그램(RIS) 신설('20~)

* ('17년) 210억원 → ('21년) 1,500억원

- ③ (고등교육기회의 형평 제고) 저소득·취약계층의 고등교육비 경감을 위해 ①저소득층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대폭 인상¹⁾, ②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(ICL) 금리 지속 인하²⁾, ③일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위기사 상환유예 및 저금리 대출전환³⁾ 등 중점 지원

1) '20년 등록금 경감률 : 기초·차상위 98.3%, 1구간 96.5%, 2구간 95.4%, 3구간 94.6%

2) '19.2학기(2.2%) → '20.2학기(1.85%) → '21.1학기(1.7%)

3) 특별상환유예 신규지원 : ('19) 767 → ('20) 3,265명 / 전환대출('20.4~'21.3) 18천명

④ (비대면·원격교육 인프라 구축) 코로나19를 계기로 본격화되는 원격교육을 뒷받침하도록 ①대학의 원격교육관리 시스템(LMS)보강, ②10개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구축, ③AI·자율주행차 등 8대 4차 산업 분야를 대상, 대학·기업·연구소 등이 참여, 교육콘텐츠를 공동개발·공유하는 「디지털 융합 가상 캠퍼스」 신설('21년 832억원)

□ 이러한 투자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고등교육투자는, ①새로 신설된 대학교육혁신 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 및 성과 창출, ②고등교육기회의 지속 확대, ③대학의 자율 구조조정 뒷받침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음

① (3대 대학교육혁신 프로그램 정착) 신규 도입된 ①지역혁신 프로그램(RIS), ②디지털 융합 가상 캠퍼스 사업의 성공적 제도와 ③내년 개시되는 LINC 3단계 사업 내실화를 중점 지원

- 지역혁신프로그램(RIS)은 ①지역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, 산·학 협업 R&D 모델 확산 ②직업교육분야 중심으로 지방교육청의 참여·투자유도 등에 중점

- 디지털 융합 캠퍼스는 ①신규 캠퍼스 신설을 지양하고, 기존 8대 캠퍼스 별 참여 대학·기업·연구소 數(수) 확대, ②참여기업·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·연구 자원의 유치, ③캠퍼스별 대학·기업·연구소 협력기반의 독립적인 거버넌스 설계 유도에 역점

- LINC 3단계 사업은 ①그동안 검증된 우수 산·학·연 협력 모델의 보급·확산 ②대학별 산학협력 수준·역량에 맞춰 3단계 유형*으로 구분·지원, ③우수·선도대학의 경우는 글로벌 산학협력까지 확장 지원 등에 초점

* 기술혁신선도형, 수요맞춤성장형, 후발대학 협력기반구축형

② (고등교육기회 지속 확충) 국가장학금은 ①기초·차상위 가구의 국가장학금 단가 상향(520→700만원), ②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등록금 전액* 지원

* '21년 기준 사립대 평균 등록금 749만원/연 수준 지원

-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(ICL) 사업은 ①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, ②저소득·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경우, 재학중 대출이자 면제

③ (대학의 자율 구조조정 유도) ①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실적을 점검하여 「재정혁신지원프로그램」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규모와 연계

②국립대학간 강의·학점 교류, 교수·학습자원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, ③지역전문대학은 기초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고등 직업교육기관화, 지역주민대상 온·오프라인 평생교육 중심 기관으로 역할·기능 전환 지원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